

# 전북사회서비스원 임원 공개 모집

### 29일까지 상임이사 1명 · 비상임이사 11명 · 비상임 감사 1명

전북도가 올해 하반기 출범을 앞둔 (재)전북사회서비스원 임원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임원은 당연직 이사과 감사 각 1명을 제외한 13명으로, 원장인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11명, 비상임 감사 1명이다.

임원은 주민등록상 전북도 거주자로서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으며, 조직 관리 및 경영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사로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방식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토대로 '전북사회서비스원 임원 추천위원회'의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복수의 후보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해 도지사가 최종 임명하게 된다.

상임이사인 전북사회서비스원 원장은 기관을 대표하고 업무 집행과 재정을 총괄하며, 비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해 사회서비스원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비상임 감사는 사회서비스원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시하게 된다.

모집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29일 오

후 6시까지로 지원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전북도청 10층 사회복지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홈페이지 알림마당(도청소식) 공고(고시)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전북도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품질향상을 위해 지난해 타당성 검토와 행정안전부 출연기관 설립 협의를 마쳤으며, 올해 2월에 조례를 제정 공포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구하고자 학계, 관계기관, 노동 단체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도 꾸려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임원을 공개모집 한 후, 창립총회를 거쳐 제·규정을 확정하고 직원을 채용해 하반기에 개원할 방침이다.

강영석 도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전북사회서비스원의 임원은 우리 전북도의 사회서비스 품질이 상향평준화될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을 지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능력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란다"면서 "도에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임원을 선발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협약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내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운애 센터장, 이하 센터)는 도내 경력단절여성 취업 기회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제고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적극적인 교류·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경력단절 여성 및 국가전문자격시험 여성 합격자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실질적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에, 센터는 취업지원서비스 부재로 구직기간 장기화 및 구직활동 어려움을 호소하는 여성 시험합격자에 대해 체계적·전문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공단은 센터에 구직등록한 취업 희망 여성을 능력평가전문가(시험위원)로 위촉해 여성 취업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센터는 지역 내 유망 진출 구인처 발굴, 직업교육훈련과정 개발·보급, 예비창업자 발굴, 창업지원 기관과 연계, 세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 등을 운영해 일자리 사업 활성화 및 여성이 일하기 좋은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취업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운애 센터장은 "양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양질의 여성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취업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금번 협약을 통해 전북지역 내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을 보다 더 공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지원을 위해 적극 협조와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자치경찰위, 1호 명령 발령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1호 명령을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찾아가는 정읍시 여성정책 토론회 가져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소장 이수인)는 2021년 찾아가는 정읍시 여성정책 토론회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14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의 여성정책을 활성화하고, 여성가족 정책의 균형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읍시 의회 황혜숙 의원과 이남희 의원이 참석하 가운데,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도청 및 정읍시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황혜숙 정읍시 의원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로 성별 평등을 열망하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성평

등 실현을 위한 정책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을 예산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한 정책이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남희 정읍시 의원은 여성 정책 수립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의 확대의 중요성과 성별영향 평가 대상 사업 개선율이 더욱 향상돼 특정 성별에 치우치는 사업이 아닌 고루 평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뜻깊은 사업 추진이 되는 시간"이라고 언급하며 "포럼을 통해 정읍시 여성 정책에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정 한국성인지예산 네트워크 공

동대표는 '성인지와 성별영향평가 제도 이해'라는 제목으로 성인지 정책과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소개하고, 정읍시의 여성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 정읍시 관계자들이 성별영향평가제도와 성인지 정책의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통한 여성정책 확대를 다짐했다.

이수인 여성정책연구소장은 "지역 여성정책의 확대를 위한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정읍시가 앞장서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제도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는 정책 실행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관심 확대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고 언급했다. /유호상 기자

## '산은 높고, 물은 깊네' 전 개최

전북도 산림박물관, 10월 3일까지 여름 특별기획전

'호남의 금강'이라 일컫는 내장산 자락에 위치한 전북도 산림박물관은 오는 10월 3일까지 4개월간 여름 특별기획전 '산은 높고, 물은 깊네'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박물관의 고차원 이미지 쇄신을 위한 특별기획전으로, 산림과 예술의 조화를 통한 대중성과 다양성 흡수를 목적으로 한다.

자연은 가장 편안한 안식처이기 때문에 자연을 소재로 한 많은 예술작품이 다양하게 구현됐다.

현대미술에 있어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연의 재구성과 재해석은 관람자 인식의 폭을 넓히고 시각의 다양성을 열어 주고 있다.

이번 전시는 자연을 주제로 서정성 짙은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현대작가 3인(곽광영·김용석·박경식)을 초대해서 구성했다.

곽광영은 매체의 다양한 변화와 발전을 이용해 광범위한 디지털 예술 세계를 펼치고 있다. 그는 드론을 이용해 대자연의 독창적 방식으로 시각화하고 있다. 20년 넘게 한국의 산하를 누비며, 수천 점

의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용석은 쪼개는 듯, 채를 썬 듯한 필법으로 사계절 풍경을 밀도 있게 드러내고 있다. 봄·여름·가을·겨울 풍광 속에서 생동하는 초목을 통해 변화와 신비를 응축하고 있다. 서울·전주에서 4회 개인전, 건진전, 녹색종이, 색갈로 만난 사람들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경식은 세월의 풍상을 머금은 야산의 잡목을 활용해서 풍경화를 만드는 설치작가이다. 그의 작품은 공개 자랄 수 없는 야생 환경에서 자생한 나뭇가지의 거친 선 이미 돋보인다. 굵은 것은 굵은 대로 웅이 가 있는 것은 웅이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자연의 생명력을 온전하게 포용하고 있다. 서울, 도쿄, 전주에서 개인전 7회, 아시아현대미술전, 강을 품은 바다, 백제의 재발견 등에 초대 출품했다.

아울러, 전북도산림박물관은 가을(10~12월)에는 '인물'을 주제로 한 현대미술전, 겨울(12~2월)에는 '세계에서 전북비엔날레 소장품' 전시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 여름철 산림재해 대응 역량 강화

전북도, 풍수해·산사태 방지 특별기간 운영·안전대피 체계 마련

전북도가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름철 풍수해·산사태 방지 특별기간을 운영하며, 산림재난 총력 예방·대응 안전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등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도는 지난 6월 말까지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강화를 위해 현장점검, 보수·보강 및 응급정비 등의 예방조치를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산사태취약지역 1,970개소 및 산지 전용지에 대해 시·군 합동 점검을 추진, 거동 불편자 등 산사태 재해 취약계층을 사전 파악해 유사시 안전대피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산림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취약지역에 산사태 현장에 방단(32명), 임도관리원(48명)을 현장에 배치해 산사태 예방 및 응급복구활동, 임도·사방시설을 점검, 주민대피 안내 등 산사태 예방·복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한편, 전북도는 산사태 사각지대 발

굴을 위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기초 현황 및 정밀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확대 지정·관리해 산림재해 저감을 위한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인명피해 취약지에 대해 현장 책임관(공무원), 관리관(주민대표)과 합동으로 공동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에 대한 산사태정보시스템 비상연락망 구축과 대피체계를 마련, 주민안전에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도내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 복구를 위해 산림재해복구비로 총 833억 원을 확보해 복구 중이며, 7월 중 완료율 목표도 막바지 잔여공정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허전 도 환경녹지국장은 "올 여름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며, 7~8월에는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산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소규모 자력 개간사업 공고

1. 사업목적: 전 조성을 위한 개간공사 시행 (밭작물(두부, 참깨))
  2. 사업명: 소규모 자력 개간사업
    - 사업시행자: 김현진
  3. 위치: 고창군 해리면 방축리 산12번지의 1필지
  4. 사업시행면적: 8,265㎡
  5. 사업개요(예상감보율 포함): 예상감보율 0%
    - 준공후 토사수로(300x500x300), L=352.0m, 흙관(D600), L=8.0m, 집수정(1.0x1.0x1.0)1개소
  6. 총사업비 32,398천원
    - 국고: 0천원
    - 지방비: 0천원
    - 자부담: 32,398천원
  7. 사업기간: 2021년 6월 ~ 2022년 6월 30일
  8. 사업계획 열람장소: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 \* 고시기간: 고시일로부터 15일
    - \* 의견(이의신청)제출 기한: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접수처: 고창군 건설도시과)

2021년 7월 15일 고창군수